

7월의 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국내외 선교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기를 부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조용기 목사님과 DCEM이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 삶이 어려울 때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계획하고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4.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영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고 채우게 하옵소서.

5.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기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 예수님과 함께할 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6.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올 한해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눈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 아멘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순복음동경교회에 키시모토 준코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분은 여섯 번의 암 제거 수술을 받고도 불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치료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성도는 결국 2014년 암세포가 폐와 간과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이제는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산리 기도원을 찾아가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죽더라도 기도하면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난 후에 택시를 타고 동생 집으로 가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숨만 쉬어도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를 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암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암이 사라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한국에 가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나왔다”고 간증을 했더니,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의술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자식에게 살림을 내 준 다음에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내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음속에 평강과 확신이 다가왔으면, 이제 구함의 기도는 그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00년 6월 아프리카 잠비아 성회



지난 2000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잠비아 성회는 당시 잠비아의 대통령 故프레드릭 칠루바의 초청으로 DCEM의 주관 아래 개최되었다.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 쇼그라운드와 울롱구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회에는 연인원 10만여 명이 참석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1994년 12월 스웨덴 성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만난 칠루바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매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보고있다고 전하며 잠비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성회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잠비아를 방문하게 됐고 2000년 6월 잠비아 성회를 개최했다. 이

성회에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칠루바 대통령도 각료들과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용기 목사는 성회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중요성 대해 전하며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잠비아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잠비아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전세계로 선교 사명을 펼쳐나가기 위해 일찍부터 방송-문서 선교에 힘써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부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 각지로 설

교 방송을 내보냈다. 2000년 잠비아 성회는 그 노력의 결실 중 하나이며 잠비아의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매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접하며 시작된 일이었다.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의 많은 분야가 ‘언택트(비대면)’로 수렴하게 될 전망이다.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예배와 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교회가 사역의 지평을 넓혀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폐병을 고침 받지 않았다면 절대 하늘의 길을 걸을, 따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폐병에 걸려서 희망이 구겨진 휴지처럼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생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돈보다 지위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애 속에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질병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주셨을 때, 내 영혼 속에 하늘의 가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 길을 몰랐습니다. 땅의 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 오셔서 절망에서 건져 주셨으므로 영안이 열리고 하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늘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2.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길과 땅의 길, 삶의 길과 죽음의 길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6-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야말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생각할 수조차 없는 길을 만드셨는데 바로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건너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흉내 내어 그들을 뒤따라가다가 바다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땅에는 길이 없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사 43:19)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3.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던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는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입을 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31~32)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에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고 기대해야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앞에 하늘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복음세계선교대회 대신 ‘2020 선교의 날’ 진행



“고통 중에도 전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2020 순복음세계선교대회가 ‘2020 선교의 날’ 예배로 대체 되어 5월 27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됐다. 순복음세계선교대회는 매년 5월 세계 곳곳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선교사역을 돌아보고 그들의 헌신을 격려하는 큰 행사지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예배 중 영상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19같은 전염병 그리고 지진과 기근 등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는 예수님뿐이며 우리는 전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머나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성도들은 뜨거운 기도와 함께 세계선교 헌금 작정에 적극 동참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선교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 예배에 앞서 5월 23일에는 재단법인 순복

음선교회 소속 지역별 총회장들이 화상회의를 열어 국가별 코로나19 현황과 선교현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 ‘2020 선교의 날’ 예배를 준비했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순복음선교회 일본총회 총회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일본 현지 상황을 전하며 속히 현장에배가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회복되길 소원한다며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는 64개국에 68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1102개 교회를 통해 현지 복음화 및 제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삿포르바이블컬리지 2021년 4월 개교 1기생 모집



2021년 4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삿포르바이블컬리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1기 신학생을 모집한다.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에 입각한 신학교육과 일본어교육을 받게 되며 일본선교를 이끌어 갈 능력과 소양을 갖춘 선교사로 양성된다. 졸업 후 1년간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인턴십을 통해 교회운영과 선교활동에 대한 훈련을 받고 개척 후 1년간 순복음동경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삿포르바이블컬리지 학교장 조용기 목사는 “삿포르바이블컬리지가 4차원의 영성과

오중복음의 능력으로 일본 일천만구령을 위한 중심에 서길 바란다”며 개교를 축하했다. 명예학교장 이영훈 목사는 “해마다 많은 한국인선교사들이 일본 선교에 열의를 갖고 일본 땅을 밟지만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 막혀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전문적이고 진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삿포르바이블컬리지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본선교의 길을 연다는 강한 의지로 2년 전 삿포르성전을 설립했다. 그리고 1년 반의 준비기간을

거쳐 삿포르바이블컬리지를 개교하게 됐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일본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삿포르바이블컬리지는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일본선교를 향한 비전과 소명을 받았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선발 과정을 거쳐 장학금도 지원한다. 모집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http://sapprobible.college.kr>